

한국 현대소설과 펜팔

— 새로운 관계 맺기 양상을 중심으로*

김 우 영**

요약

본 연구는 1960년대부터 1990년대까지 한국 현대소설에 나타난 ‘펜팔’ 서사를 중심으로, 압축적 근대화 과정에서 나타난 새로운 관계 맺기와 친밀성의 형성 과정을 문화사적으로 고찰하고자 하였다. 펜팔은 전통적 연고주의(혈연·지연·학연) 집단의 감시에서 벗어나 낯선 타인과 대칭적이고 익명적인 교류를 실험하는 독자적인 사교 형식으로 기능했다. 이 글에서는 게오르크 짐멜의 이방인·이차관계론과 앤소니 기든스의 순수한 관계 개념을 바탕으로 은희경, 오정희, 박태순의 작품을 분석한 결과, 펜팔은 신체의 부재로 인해 낭만적 사랑의 문법을 자동으로 획득하며 청년층에게 일정부분 성장과 해방의 계기를 제공했던 것으로 확인된다.

그러나 편지라는 매체의 비대면성은 “이해와 오해의 복잡한 상호작용”을 낳았고, 인물들은 서로에게 판타지를 투사하는 자기반영적 관계를 형성할 수 밖에 없었다. 이 환상은 실제 대면이라는 현실 앞에서 쉽게 붕괴하여 예바 일루즈가 분석한 현대 온라인 데이트의 기대와 현실 간 괴리와 유사한 구조를 보인다는 점에서 문제적이다. 나아가 박태순의 소설에서 보듯 펜팔은 점차 자본의 논리와 결합하여 현대의 온라인 데이트 앱이나 결혼정보회사와 같은 상업적 만남의 사업 모델로 포섭되는 양상을 보이기도 했다.

결론적으로 한국의 펜팔 문화는 외부 정박점이 없는 순수한 관계의 해방적 잠재력을 지녔으나, 내용적으로는 기존의 젠더 위계와 자본주의적 결혼시장 속으로

* 이 논문은 2026학년도 홍익대학교 학술연구진흥비에 의하여 지원되었음.

이 논문은 2026년 6월 13일 성신여자대학교에서 개최된 한국현대소설학회의 발표문의 문제의식을 수정, 확장한 것이다. 발표 당일 부족한 발표문을 읽어주시고 조언해주신 토론자 선생님과, 좋은 의견을 주신 익명의 심사자 선생님들께 감사드린다.

** 홍익대학교 교양과(세종) 조교수

회수되는 구조적 한계를 동시에 보여주었다는 점에서 한국 사회의 특징을 보여주는 주요한 문화적 기재라 하겠다.

주제어: 친밀성, 펜팔, 오정희, 은희경, 박태순, 낭만적 사랑, 게오르그 짐멜, 에바 일루즈, 앤소니 기든스, ‘감정 자본주의’

목차

1. 들어가며: 새로운 사교와 친밀성의 형성, 한국사회와 펜팔 (pen pal)
2. “이해와 오해의 복잡한 상호작용”으로서의 판타지, 펜팔
3. 욕망이 충돌하는 청춘 사업의 장으로서의 펜팔
4. 나오며

1. 들어가며: 새로운 사교와 친밀성의 형성, 한국사회와 펜팔 (pen pal)

본 연구는 1960년대 이후부터 1990년대에 걸친 기간 한국 현대소설에 나타난 ‘펜팔’ 장면과 서사, 그 문화사적 의미를 집중적으로 분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구체적으로 학생, 청년층을 주 독자층으로 내세운 대중 잡지(『명랑』, 『학원』, 『여학생』 등)의 펜팔란을 통해 편지 친구를 구하던 문화적 현상에 주목하고, 청춘 드라마 등을 통해 낭만적 이미지로 소비되던 펜팔 문화가 당대 문학 텍스트 안에서 어떻게 수용되고 변주되었는지 탐구하고자 한다. 그리고 이를 통해 펜팔이라는 매개가 아날로그 시대의 소통 방식과 관계 맺기, 나아가 청년 세대의 정체성 탐색 과정에서 어떤 의미를 지녔는지 사회사적, 문학사적으로 고찰하는 것을 연구의 목적으로 삼고자 한다.

‘펜팔’(pen pal)은 편지를 매개로 이루어지는 친구 관계를 의미한다.¹⁾ 한국에서는 오래전부터 서간(書簡)의 문화가 존재했기에 펜팔 또한 유구

한 전통인 서간의 문화와 공명하는 측면이 있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서간의 경우 교통 통신의 미발달과 서간을 주고받던 당사자들 간에 물리적 거리라는 현실적인 상황으로 인해, 이는 사이지만 부득이하게 편지로만 왕래가 이루어지는 과정에서 교환되던 것이었다. 이와 달리 펜팔의 경우 대부분 얼굴도 모르는 상태에서 오직 편지라는 매개체만을 통해 이루어지는 관계들이 대부분이었다는 측면에서 ‘서간’과는 다르게 ‘익명성’이 개입된다는 점이 특징적이다. 물론 펜팔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자신의 이름을 비롯하여 신분과 기본 정보를 정확히 밝혀야함이 전제되었지만, 사실 그렇지 않은 경우가 상당히 존재했다는 점은 흥미로운 지점을 낳는다.

즉 펜팔은 1960~1970년대, 초기 산업화 한국 사회에서 단순한 취미 활동 이상의 사회문화적 의미와 개인들 간의 관계의 변화 양상을 보여준다. 우선 해외여행이 국가의 허가를 요하던 시절, 국외의 친우와의 펜팔은 한국 바깥의 합법적으로 접할 수 있는 공적 영역의 차원에서 다뤄졌음이 확인된다. 그리고 국내 잡지의 펜팔란은 엄격한 교외 단속 속에서 남녀 청소년이 이성과 교류할 수 있는 사실상 공인된 통로였다. 실제로 1960~1980년대 어린이·청소년 잡지에는 국내 및 해외 펜팔 광고가 꾸준히 등장하였으며, 당대인의 증언에서도 펜팔은 ‘낭만과 품위를 갖춘 방식’의 교제로 기억된다. 이런 까닭에 펜팔 문화는 당대 폭발적으로 증가하여 청소년, 청년 사이에서 새로운 교류 형태로 떠오르고 있었음이 잡지 미디어와 세대 담론 연구를 통해 이미 논의된 바 있다.²⁾ 이렇듯 펜팔은

1) 보다 포괄적으로는 전화, 통신 등을 중심으로 친교가 이루어지는 것까지 포함한다. 즉 당사자들 간의 대면 접촉이 아니라 매개체를 경유한다는 점에서 현재의 온라인 만남과도 이어지는 부분이 있다. ‘펜팔’이라는 용어는 1940년 이후에 등장하여 1960년을 전후한 시기 전 세계적으로 가장 유행했음이 지적된다. 정승화, 「우정(友情)이라는 심리전: 1960년대 한국에서의 펜팔 운동에 관한 연구」, 『동방학지』 181, 2017, 194면.

2) 김연숙, 「1960년대 대중잡지 『명랑』의 펜팔 문화와 친밀성의 재편」, 『인문과학연구』 57권, 대구가톨릭대학교 인문과학연구소, 2026.3; 김소원, 「1970년대 잡지 『여학생』의 소녀 담론

국내, 해외를 막론하고 청년층 사이에서 특정 문화의 형태로 활발히 행해지면서 초기 산업화, 냉전 시기 청년 세대의 욕망, 젠더 규범의 우회 등 복합적인 의미망을 형성하는 문화 장치였음이 시사된다.³⁾ 즉 펜팔은 특정 시기 한국 사회의 공·사적인 인간 관계, 사회 관계망을 다채롭고 가감 없이 보여주는 주요한 기제였던 것이다.

그러나 펜팔이 갖는 이같은 사회 문화사적 의미에도 불구하고 한국 현대문학 연구에서 ‘펜팔’은 독립적인 분석 대상으로 다루어진 바가 거의 전무하다.⁴⁾ 대체로 펜팔이 학생들의 문해력 증진이나 작문능력 향상, 외국어 학습능력과 타문화에 대한 이해력 증진, 소통능력 향상에 도움이 된다는 교육적 효용에 주목한 연구들이 매우 한정적으로 존재할 따름이다.⁵⁾ ‘펜팔’이 이루어지는 범위를 보다 확장한다고 하더라도, 편지·서신을 소재로 한 기존 연구는 주로 서간체 소설의 형식적 특성이나 근대 우편 제도와의 관계에 집중되어 왔으며,⁶⁾ 특정 시대의 대중문화적 실천으로서

과 만화 — 강요된 모범과 만들어진 명랑』, 『대중서사연구』, vol.27, no.3, 통권 59호, 대중서사학회, 2021.

3) 앞서 언급했듯 정승화 또한 한국 내 공적 영역에서 한·미 간에 대대적으로 이루어진 펜팔 활동을 통해 냉전 시기 사적 교류를 통해 국가 간 결속력을 높이려 한 시도에 대해 의미 부여한 바 있어 연구에 참조점을 제공한다. 한편, Alexis Peri는 1943~1956년 소련과 미국 여성들 사이의 펜팔 교류를 ‘시민 외교(citizen diplomacy)’로 규정하며, 냉전 시기 일반 여성들의 서신 교환이 공식 외교와는 별개의 평화 운동의 토대가 되었음을 밝혔다. Peri, Alexis. *Dear Unknown Friend: The Remarkable Correspondence between American and Soviet Women*, Harvard University Press, 2024.

4) 이런 가운데 2026년 3월에 발표된 김연숙의 논문은 『명랑』을 중심으로 진행된 펜팔 문화와 관련한 최신의 분석을 보여주어 본 논문에 주요한 참조점을 제공하고 있다. 김연숙, 「1960년대 대중잡지 『명랑』의 펜팔 문화와 친밀성의 재편」, 『인문과학연구』 57권, 대구가톨릭대학교 인문과학연구소, 2026.3.

5) 김시근, 「펜팔을 통한 외국어 학습흥미 증진과 자주성 형성에 관한 연구」, 『金龜論叢』 1, 1993; 오마리아, 「전자펜팔활동을 통한 초등학생들의 영어학습자자율성신장 연습」, 『외국어 교육』 13-1, 2006 봄.

6) 김성수, 「근대적 글쓰기로서의 서간(書簡)양식 연구(2) — 근대 서간텍스트의 역사적 변천과 문학사적 의미」, 『현대소설연구』 no.42, 『한국현대소설학회』, 2009.

펜팔이 소설 텍스트 안에서 어떠한 서사적 기능을 하는지에 대한 연구는 현저히 부족한 실정이다.

그러나 앞서 언급했듯, 펜팔은 펜팔이 이루어지는 편지라는 매체가 갖는 가능성과 한계, 그리고 미지의 이방인과의 새로운 관계 맺기(연애, 결혼 포함), 그리고 이와 관련하여 무엇보다 펜팔 행위를 적극적으로 행하던 당대 청년 세대의 상황을 가감 없이 드러내 보인다는 점에서 한국 사회 속 현대적 관계, 특히 이성 간 친밀성의 형성 측면에서 보다 본격적으로 논의될 필요가 있다. 전후 한국 사회가 전면적으로 개편되고 산업 사회로 발돋움을 시작하던 시기와 폭넓게 맞물려 있던 펜팔 행위는 기존 전통 사회의 관계 맺기와는 사뭇 다른 차원의 양상을 보여준다는 점에서 매우 흥미롭다. 근대화 이전 기존 한국 사회에서 관계란 이미 생래적으로 주어지거나(가족), 아주 좁은 지역 내 한정된 인원들 사이에서 비교적 투명하게 이루어지던 것들이었다.⁷⁾ 결혼의 경우 부모의 인맥 혹은 중매인의 주선 아래 알음알음 이루어졌으며 점점 없는 완전히 낯선 타인과의 접촉은 거의 없거나 장려되지 않는 것이 일반적으로 완전한 자유연애는 터부시되었다. 전통적 유교 농경사회가 해당 사회와 접촉하던 이방인에 대해 취하던 태도를 상기해 볼 때 거의 예외가 발견되지 않는다. 특히 비교적 낯선 관계로 인한 위험성이 더 큰 것으로 여겨지는 여성의 경우, 이방인과의 접촉 및 관계 맺기는 금지, 및 터부시되었던 것이 사실이다.⁸⁾

이런 상황에서 펜팔이 전제하고 있는 관계 형성 양상은 한국사회에 있어 전례를 찾아보기 어려울 정도로 새롭고도 매혹적인 것이었다. 주로 잡지라고 하는 근대적 매체를 경유하여 완전히 낯선 타인과의 개인 대 개인의 만남, 이는 그 자체로 매우 도시적 속성을 띄는 것으로 한국 사회가

7) 김동춘, 「유교(儒敎)와 한국의 가족주의 - 가족주의는 유교적 가치의 산물인가?」, 『경제와 사회』 Vol.- No.55, 비판사회학회 2002.

8) 이는 본고에서 다룬 작품들에서 낯선 남성과 펜팔을 하는 딸을 걱정하는 어머니들의 태도에서도 여실히 드러난다.

전통적인 사회의 인간관계와는 다른 차원의 친밀성을 시도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었다. 일찍이 도시인들의 삶의 특성과 태도에 대해 논의한 바 있는 짐멜에 따르면 도시인들은 자신을 보고하기 위해 속내를 드러내지 않으면서 반감과 같은 부정적인 감정들을 숨기면서 서로 간의 관계를 이어나가는 특징을 보편적인 삶의 형식으로 지니는 것으로 지적된다.⁹⁾ 이점을 펜팔과 함께 들여다보면 펜팔이야말로 솔직함과 투명함을 전제하고 표방하면서도 타인 앞에서 자신을 철저히 은폐하고 속내를 감추면서 관계를 맺을 수 있었다는 점에서 도시적 관계의 주요한 속성을 지니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이렇듯 익명성과 투명성이 교차하는 펜팔의 구조적 특징은 ‘이방인’에 대한 짐멜의 논의를 참고할 때, 보다 풍부하게 논의될 여지가 생긴다.

짐멜은 이방인을 물리적 이동성과 사회적 정착성이 동시에 작동하는 역설적 위치로 규정한 바 있다. 이방인은 “오늘 왔다가 내일 떠나는 방랑자가 아니라, 오늘 왔다가 내일도 머무르는 자”이며, 이 근접성과 거리의 동시적 결합이야말로 이방인이라는 사회적 형식의 본질임을 강조한다. 짐멜에 따르면 이러한 위치는 역설적으로 이방인에게 더 큰 객관성을 부여한다.¹⁰⁾ 이방인은 집단 내부의 특수한 성향과 편향에 얽매이지 않기

9) ... 반감은 잠재적 또는 실제적 적대심의 전 단계에 해당한다. 반감은 거리를 두면서 회피하는 태도를 가져온다. 이러한 태도가 없이는 대도시적 삶은 영위될 수 없을 것이다. 그러한 반감의 정도, 방향, 그것이 나타났다가 사라지는 주기, 반감을 표명하는 형식들, 이 모든 것이 합쳐져서 대도시 삶의 분리 불가분한 전체를 이루는데, 여기에는 한정된 의미에서 모든 것을 통일시키는 모티브들이 동시에 작용한다. 대도시적 삶을 형성함에 있어서 직접적으로는 불협화음으로 보이는 것이 실상은 그 안에 깔린 기초적 사회화의 형식들 가운데 하나일 뿐이다.

이처럼 현저한 반감을 숨기면서 속내를 드러내지 않는 태도는 다시금 대도시의 훨씬 보편적인 정신적 삶의 형식 혹은 외관으로 나타난다. 말하자면 이러한 태도는 개인들에게 일정한 방식의 자유를 어느 정도 보장해주는데, 다른 상황에서 그와 비견될 만한 것은 없다. 짐멜, 김덕영·윤미애 역, 『모더니티 읽기』, 새물결, 2005, 44면.

10) 위의 책, 79-88면.

때문에, 오히려 내부 구성원들 사이에서보다 더 솔직하고 자유로운 고백과 신뢰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런 측면은 펜팔에서 이루어지는 관계를 역설한다. 편지를 주고받는 상대는 물리적으로는 완전히 멀리 있는 이방인적 존재이지만, 정기적인 서신 교환을 통해 정서적으로는 지속적이고 반복적인 근접성을 획득한다. 나아가 펜팔 상대는 편지를 쓰는 이가 속한 가족·마을·학교라는 연고 집단의 규범과 감시로부터 자유로운 위치에 있기에, 오히려 그 어떤 대면 관계보다 더 내밀한 자기 고백이 가능해진다.

물론 짐멜의 이방인 논의를 참고하여 한국의 펜팔 문화를 설명하는데 있어서는 주의할 점이 있다. 짐멜의 이방인은 언제나 이미 존재하는 공동체를 전제하며, 그 공동체에 조우하는 개인으로서 정의된다. 즉 이방인론은 ‘정착한 다수’와 ‘이동하는 소수(혹은 개인)’라는 비대칭적 구조 위에서 성립하는 이론이다. 그런데 펜팔의 경우, 펜팔에 참여하는 두 개인 가운데 어느 쪽도 상대에게 ‘정착한 세계’로서 존재하지 않는다. 양측 모두 각자의 연고 집단으로부터 일시적으로 이탈한 채, 어떤 기존 공동체도 대표하지 않는 자격으로 서로를 마주한다. 이는 이방인이 공동체에 접속하는 비대칭적 만남이 아니라, 이방인과 이방인이 대칭적으로 조우하는 만남이라는 점에서 주목된다.

선행 연구가 폭넓게 지적하고 있듯 한국사회는 가족과 국가 사이에 ‘사회’라는 층위가 구조적으로 결핍되어 있었으며, 개인은 오직 혈연·지연·학연이라는 연고 집단 안에서만 신뢰할 만한 관계를 구축할 수 있었다.¹¹⁾ 짐멜의 이방인론이 이미 존재하는 서구 대도시적 ‘사회’를 전제로 성립한 이론이라면, 한국의 펜팔은 그러한 ‘사회’가 부재한 자리에서 처음으로 낮

11) 김동춘은 신체호가 일찍이 한국인들이 "가족이 있는 줄만 알고 국가가 있는 줄 모르며, 개인이 있는 줄만 알며 사회가 있는지 모른다"고 비판한 바 있다는 점을 들어 이러한 가족주의와 국가주의가 "동전의 양면" 그 사이에 자율적인 시민사회의 영역이 형성될 기회를 갖지 못했다고 지적한다. 김동춘, 앞의 논문, 108면.

선 개인들 간의 신뢰를 실험하는 실천이었다는 점에서, 짐멜의 논의가 상정하는 조건 자체가 처음부터 결여되어 있는 상태에서 이루어진 독특한 실천인 셈이다.

더불어 펜팔의 한국적 맥락을 설명하기 위해서는 짐멜의 ‘이차관계(dyad)’ 논의도 참고할 수 있겠다. 짐멜은 이차관계를 사회학의 가장 단순한 단위로 규정하면서, 그 관계에는 개인들을 초월하는 상위의 응집력이나 개인을 압도하는 다수가 존재하지 않으며, 관계는 전적으로 두 당사자의 지속적 의지에만 의존한다고 보았다. 이는 이방인론의 비대칭성(개인 대 집단)을 벗어나, 애초에 ‘집단’이라는 상위 심급을 전제하지 않는 관계 형식을 사고할 수 있게 해준다.¹²⁾ 펜팔은 바로 이 이차관계의 극단적 형태로, 어떤 상위 공동체도 개입하지 않는 두 개인만의 자기완결적 관계다. 여기에 기든스의 ‘순수한 관계 개념’(관계 외적인 것에 의존하지 않고 관계 그 자체의 내재적 속성에 따라서만 유지·소멸하는 관계)¹³⁾을 겹쳐볼 수 있다. 편지라는 매체는 기든스가 제시했던 사랑의 세 유형 가운데 낭만적 사랑과 구조적으로 가장 밀접하게 공명한다. 펜팔 관계는 발신과 수신 사이에 필연적인 시차를 두고, 상대의 신체를 대면하지 않은 채 오직 문자를 통해서만 이루어진다는 점에서 열정적 사랑이 요구하는 즉각적 몰입과 신체적 근접성의 조건을 처음부터 결여하고 있다. 한편 편지는 자기소개에서 시작해 시간의 흐름에 따라 관계가 진전되는 서사 구조를 필연적으로 취하며, 신체의 부재로 인해 오직 언어를 통한 숭고화만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성을 사랑에서 분리하고 숭고한 사랑의 요소가 지배하는 낭만적 사랑의 조건을 매체 자체의 속성으로부터 이미 충족시킨다. 다시 말해 펜팔은 열정적 사랑에는 구조적으로 미달하지만, 낭만적

12) Simmel, G. K. H. Wolff, Ed. & Trans, *The sociology of Georg Simmel*, Free Press, 1950, pp. 118-170.

13) 앤소니 기든스, 배은경·황정미, 『현대인의 성, 사랑, 에로티시즘』, 새물결, 2003, 103-104면.

사랑의 문법은 편지라는 형식 자체가 자동으로 생산해내는 관계였다고 할 수 있다.¹⁴⁾

그리고 팬팔은 연고주의라는 외부 정박점을 배제한 채 오직 서신 교환의 지속 여부로만 존립하는 관계 형식이었다고 정리할 수 있다. 즉 이 대칭적이고 자기완결적인 관계 형식은, 한국사회에 구조적으로 결핍되어 있던 ‘사회’라는 층위를 대체하거나 선취하는 실천이었다는 점에서, 서구적 근대성의 산물이라기보다 압축적 근대화를 겪은 한국사회 특유의 조건 속에서 발생한 독자적인 관계 형식, 사교의 형태로 의미부여 할 수 있다 하겠다. 이렇게 팬팔은 매체적 조건상 열정적 사랑에는 미달하나, 낭만적 사랑의 문법은 자동으로 획득하는 관계였으나 실제 한국 사회와 제도의 층위에서는 낭만적 사랑이라는 이미 존재하는 문법과 결혼시장이라는 궁극적 체제 안으로 다시 포섭되는 양상을 보인다. 그리고 이 새로운 사교, 친밀성의 가능성과 실현 사이의 어긋남이야말로 전후 한국사회에서 팬팔이 지녔던 해방적 가능성과 그 구조적 한계를 동시에 설명하는 결절점이라 할 수 있다.¹⁵⁾

14) 앤소니 기든스는 근대적 친밀성의 변동을 설명하면서 사랑을 열정적 사랑, 낭만적 사랑, 합류적 사랑이라는 세 층위로 구분한다. 이 구분은 단순한 유형 분류에 그치지 않고, 각 사랑의 형식이 서로 다른 신체적·시간적 조건 위에서 성립한다는 점에서 매체론적으로도 유의미하다. 열정적 사랑은 일상을 초과하는 몰입과 중독으로 규정되며 대개 신체적 근접성과 성적 열정의 즉각적 현실화를 요구한다. 반면 낭만적 사랑은 개인의 삶에 서사(narrative)의 관념을 도입하는 사랑으로, 숭고한 사랑의 요소가 성적 열정의 요소를 지배하며 성을 사랑으로부터 분리해내는 형식을 취한다. 로맨스(romance)라는 단어 자체에 ‘이야기를 한다’는 뜻이 함축되어 있다는 사실은, 낭만적 사랑이 본질적으로 서사적 구성물임을 보여준다. 마지막으로 합류적 사랑은 “나는 나이고 너는 너임을 확인하는 것”에서 출발하는 대칭적 사랑으로, 관계 외적인 것에 의존하지 않고 상호작용을 통해 관계 자체의 중요성을 높이며 정체성 형성을 독려한다. 위의 책, 76-88면(밑줄 강조 인용자).

15) 기든스가 유형화한 합류적 사랑이 요구하는 조건 — 관계 외적 목적으로부터의 자유, 서로 다른 정체성의 대칭적 인정 — 은 이론적으로 보면 연고 집단으로부터 이탈한 두 개인이 오직 편지라는 상호작용만으로 관계를 구성하는 팬팔에서 가장 이상적으로 실현될 수 있는 것처럼 보인다. 앞서 검토한 짐멜의 이자관계론이나 순수한 관계 개념과 합류적 사랑이 정확히 공명하는 지점도 여기에 있다. 그러나 실제 1960년대 『명랑』의 팬팔란을 분석한 연구가 보

이같은 관점에서 본 연구는 이어지는 장에서 기존 연구가 주목하지 않은 ‘펜팔’이라고 하는 특정 행위에 보다 집중함과 동시에, 문학 텍스트 분석과 사회문화사적 맥락(집멜, 기든스)에 대한 고찰을 결합함으로써 1960~1990년대 한국 현대소설과 사회 양측에서 ‘펜팔’의 의미를 새롭게 조명하고자 한다. 더불어 기존의 연구가 펜팔이 사적 친교라는 측면에서 여성, 혹은 거시적 외교 담론에 초점을 맞추었던 것과 달리, 본 연구는 펜팔에 참여한 남성들의 욕망과 주체 구성까지 포함함으로써 당대 한국 사회로 분석의 지평을 확장하고자 한다. 나아가 사적 영역에서 이루어진 펜팔이 최근 급속도로 확산되고 있는 ‘온라인 테이트’의 한 측면과 본질적으로 맞닿을 수 있다는 점을 보여주고 있다는 점에서, 에바 일루즈의 견해를 참고하여 현재 한국 사회의 남/녀 간의 사교와 관계 맺기와 관련하여 서도 흥미로운 지점을 선취하고 있음도 논의하고자 한다.¹⁶⁾

구체적으로 본고는 먼저 1960~1990년대 발표된 소설 가운데 펜팔을 소재 혹은 서사 장치로 활용한 작품들을 살피고자 한다. 『여학생』, 『학원』 등 청소년, 청년들을 주 독자층으로 한 매체의 펜팔란의 구성을 살피고, 박태순,¹⁷⁾ 오정희, 등 당대 소설가들의 작품들, 그리고 이후 1960년대를

여주듯, 펜팔란에 나타난 연애 욕망은 순수한 감정적 교류만이 아니라 경제적 현실성을 함께 고려하는 실용적 성격을 강하게 띠었으며, 그 결과 기존의 젠더 위계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수렴되었다. 잡지사의 규격화된 시스템은 독자들 스스로를 결혼과 가정이라는 목적에 부합하는 존재로 규격화하여 기록하도록 만들었다.

이는 펜팔이 형식적으로는 순수한 관계·합류적 사랑의 대청성(외부 정박점의 부재, 관계 자체의 자기완결성)을 취하면서도, 내용적으로는 낭만적 사랑의 서사 문법(영원성, 하나뿐인 상대, 결혼이라는 종착점)으로 재코드화되어 결국 기존의 결혼시장과 젠더 규범 안으로 회수되었음을 뜻한다. 이 회수는 집멜이 경고한 ‘사교의 퇴화’ — 형식이 요구하는 무목적성의 경계가 무너지고 이해관계가 침입하는 현상 — 와 정확히 같은 궤적을 그린다는 점에서, 이론적 틀 전체가 하나의 일관된 서사로 수렴됨을 확인할 수 있다.

16) 박성환, 「근대 사회의 분화와 ‘사교’의 문화적 의미」, 『문화와사회』 제13권, 한국문화사회학회, 2012.

17) 필자는 줄고에서 박태순 소설 속 펜팔의 존재에 주목한 바 있다. 김우영, 「‘은유’로서의 여성과 ‘산책자’로서의 여성: 박태순 문학의 여성 재현 양상을 중심으로」, 『현대문학의 연구』

배경으로 한 은희경의 작품들에 이르기까지, 분석의 대상으로 설정하였다.

다음으로 작품 속 팬팔이 작동하는 방법에 주목하여 팬팔이 소설 텍스트 내에서 수행하는 서사적 기능을 분석하고자 한다. 특히 1)팬팔을 통한 관계 형성과 욕망의 서사화 방식, 2) 남성·여성 인물의 팬팔 참여가 갖는 주체성·정체성 탐색의 의미, 3) 팬팔 편지 교환이 서사적 긴장과 플롯 추동에 기여하는 방식에 주목하고자 한다. 이 과정에서 팬팔이 사회문화사적 맥락에서 갖는 의미에 대해 살펴보게 될 것이다.

나아가 선행 연구가 주목해 온 여성의 로맨틱 욕망뿐 아니라, 익명성에 기대어 새로운 관계를 설정하고자 했던 남성 인물들의 욕망을 새로운 관계 형성(도시성의 맥락에서)의 측면에서 포괄적으로 다룰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팬팔에 대한 이같은 접근은 급속히 도시화되는 한국 사회 내에서 전통사회와 다른 새로운 종류의 인간관계가 설정, 확장되는 지점(로맨스를 경유하여 남/녀 간 연애, 결혼이 산업화되는 측면)을 보여주면서 한국사회의 새로운 변화 양상을 탐색할 수 있게 할 것으로 기대된다.¹⁸⁾

2. “이해와 오해의 복잡한 상호작용”으로서의 판타지, 팬팔

전통적으로 편지는 떨어져 있는 사람 사이에 텍스트를 경유해서 이루어지는 소통이었으며 기본적으로 아는 사이를 전제로 하는 것이었다. 그러나 앞선 장에서 논의했듯 본고에서 논의하고자하는 팬팔은 현대사회 속 대도시 사회의 특성이라고 이야기되는 ‘익명성’에 보다 기대고 있다는

85, 한국문학연구학회, 2025.

18) 현대인의 감정과 자본이 엮이는 상황, 특히 온라인테이트사이트의 이용 경험을 통해 현대인의 관계 형성을 분석한 에바 일루즈의 책은 팬팔을 통해 이루어지는 관계를 분석하는데도 큰 시사점을 준다. 에바 일루즈, 김정아 역, 『감정자본주의』, 돌베개, 2010.

점에서 보다 현대적인 특징을 가진다.

모더니티 연구를 수행했던 짐멜은 일찍이 편지에 대해 다음과 같이 지적한 바 있다. 편지는 비언어적 단서와 대면 소통의 맥락이 없다. 그 결과 편지는 뉘앙스가 제거된 순수한 사실적 내용만을 제시한다. 따라서 편지는 생각을 명확하게 전달하지만, 구어 소통이 가진 감정적·맥락적 풍부함을 놓친다. 그리고 이러한 명확성은 오해를 낳을 수 있다. 수신자는 텍스트가 제공하는 논리적 의미 이상을 찾으려 하지만, 편지는 그 감정적·주관적 뉘앙스를 공급할 수 없다. 문자 소통은 논리적 내용에서는 더 정밀하지만, 더 깊은 개인적 의미를 전달하는 데는 더 모호할 수 있다. 이 정밀함과 모호함의 이중성이 편지를 오해의 빈번한 원천으로 만든다는 것이다. 그리고 이런 가운데 이해와 오해의 복잡한 상호작용이 생겨날 수 있음이 강조된다.¹⁹⁾

즉 짐멜이 지적한 이런 편지의 기본적인 특성은 편지의 발/수신자가 서로를 잘 모르는 사이임을 전제한 펜팔 관계에서 증폭될 수 있다. 그리고 이 오해의 지점에서 수/발신자 각자의 판타지가 개입할 여지가 생긴다. 사람 간의 관계, 특히 이성 간의 만남에서 판타지가 개입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할 수 있는 부분이지만, 이 시기 한국에서 이루어진 펜팔에서 비로소 현대화, 대도시화의 특성을 보여주는 관계의 일면이 보인다는 점은 주목할 부분이다.

이같은 맥락에서 본고에서 살펴본 은희경의 『새의 선물』²⁰⁾은 1969년 고창의 소읍을 배경으로 한 작품이다. 12살 주인공 소녀인 ‘강진희’의 시선에서 전개되는 작품으로 진희의 집(외할머니의 하숙집), 학교, 동네에

19) 게오르그 짐멜, 김덕영·윤미애 역, 『짐멜의 모더니티 읽기』, 새물결, 2006. 196-199면.

20) 1995년 단행본으로 처음 발표되었으며, 2014년 2022년, 개정판이 출간되었다. 본고에서는 2014년 개정판을 인용본으로 사용한다. 책이 출간된 것은 1995년이나, 작품 속 배경이 1960년대 후반이라는 점에서 1960년대-1970년대 한국 사회의 일면을 잘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된다.

서 일어나는 일이 주요 내용을 이루고 있다. 많은 사건들이 일어나는 가운데 본고에서 주목하는 부분은 진희의 이모인 ‘전영옥’의 펜팔 장면이다. 지방 소읍에 사는 여성 인물인 영옥이 펜팔 문화를 접하게 되고 이를 통해 이성을 만나기 시작하고 새로운 관계를 맺어가는 과정이 비교적 상세하게 드러나고 있어 한국 내 펜팔 문화의 일면을 보여주고 있다는 점에서 본고의 논의에 주요한 참조점을 제공하고 있다.

이모가 펜팔을 취미로 삼은 것은 꽤 오래된 일이다.

펜팔이란 것이 정숙한 처녀의 행실로는 그다지 어울리지 않는 다소 발랄한 취미였기 때문에 처음 이모가 펜팔을 하게 된 공개적인 동기는 영어 공부를 위해서라고 알려져 있다. 어디까지나 실용 영어를 확실히 공부할 목적이라는 데야 고지식한 할머니도 이모의 해외 펜팔에 강력한 반대 이유를 대지 못했다. 이모의 직업이 명색이 영어 과외 선생이었으니 할머니로서는 펜팔이 ‘쓰잘데없는 편지질’의 다른 표현이라는 짐작은 있었지만 직업적 지평을 넓히려는 이모의 기백을 막무가내로 가로막을 수만도 없는 일이었던 것이다.(밑줄 강조 인용자)²¹⁾

인용문에서 보듯 영옥이 펜팔을 시작한 것은 대외적 동기는 ‘영어공부’로 이는 앞서 선행 연구들을 통해 제시했던 펜팔 운동의 대사회적인 메시지와 의도를 상기시킨다. 이방인과의 접촉을 금기시했던 1960년대 평범한 어머니인 영옥의 모친(진희의 외할머니) 또한 펜팔을 “쓰잘데없는 편지질”이라고 여기지만, 딸의 영어 공부를 위해서라는 명목에서는 이를 눈감아준다. 영옥은 “먼저 무슨 국제교류협회인가 하는 회사로 자기 사진과 신청서”를 보낸 뒤 “그 사진과 신청서를 접수받은 ‘협회’는 자체 판단에 따라 조건에 맞는 외국인의 집주소를 하나씩 소개”해 주는 방식으로 첫 펜팔 상대를 매칭받게 된다. 그 결과 캐나다에 사는 “해럴드 뭐라고 하는

21) 은희경, 『새의 선물』, 문학동네, 2014, 25-26면.

열여섯 살 소년”의 주소를 받아 펜팔을 시작하게 된다. 해럴드와의 펜팔은 처음에는 소기의 목적대로 영어공부를 위한 수단으로, 소읍에서 특별한 이벤트 없이 무료함을 느끼던 영옥의 삶에 생기를 불어넣는 계기가 된다. 그러나 이윽고 그다지 출중치 못한 영어 실력을 가진데다 펜팔 당사자 간 제대로 소통이 될 만한 여지가 없었던 첫 펜팔은 결국 흐지부지되고 만다.²²⁾

그러나 두번째 펜팔은 좀 달랐다. 상대가 외국인이 아닌 한국인이고 성인 남자였으며 (어쩌면 결혼도 가능하다는 점에서 이것은 중요한 조건이었다) 그리고 무엇보다 군인이라는 신분이 어느 이국의 여드름투성이 사춘기 소년의 존재와는 비교도 안 될 만큼 현실감이 있었다. (중략)

이모의 자백에 따르면 이모는 그 펜팔을 잡지나 가요책 뒤의 펜팔난에서 주소를 보고 시작한 것은 아니었다. 『명랑』이라는 잡지의 펜팔난에서 한 군인의 주소를 베껴와 펜팔을 시작한 사람은 이모가 아니라 이모의 친구인 면장집 딸 경자 이모였다. 경자 이모는 펜팔 상대인 군인으로부터 자기에게 진실한 친구가 하나 있는데 그에게 어울릴 만한 진실한 상대를 한 명 소개해달라는 부탁을 받았다. 그래서 경자 이모는 그 진실한 상대로서 우리 이모를 점찍었고 이 이상 진실한 상대를 찾을 수 없으리라 하는 주석과 함께 이모의 주소를 적어 보냈다.(밑줄 강조 인용자)²³⁾

위의 인용문에서 보듯 영옥의 다음 펜팔 상대가 된 사람은 군인 ‘이형렬’로 서울 출신의 비교적 있는 집안 자제로 시골 청년들과 다른 고급의 취미를 지닌, 인물로 이야기된다. 그러나 이 또한 전언(경자에 의한), 혹은 짐작(영옥 스스로의 판타지 의거)에 의한 것으로 영옥이 자신을 서울로의 대학 진학을 어쩔 수 없이 포기한 영어 과외 교사 및 현모양처 준비

22) 결국 흐지부지 되고 말았지만, 펜팔이 갖는 이질적이고도 매혹적인 속성을 가장 잘 보여줄 수 있는 것이 해외 펜팔이라 하겠다.

23) 은희경, 앞의 책, 29-31면.

생으로 이야기한 것 만큼이나 그 진실성을 완전히 담보할 수는 없는 것이다. 그럼에도 각자의 서사화와 꾸며진 자기고백을 통해 이들 두 청춘 남녀는 새롭게 친밀성을 획득하고 이를 발전시켜나간다. 그리고 그들 간의 대면 만남이 이루어지기 전까지 팬팔을 통한 교제는 역설적으로 그 당시 시골 여성이 시도할 수 있는 가장 안전한 형태의 모험이었다. 즉 기능적으로 분화된 사회체계에서는 무엇보다 친밀관계를 어떻게 시작할 것인가의 어려움이 부각되게 마련이다.²⁴⁾ 자기준거적인 낭만적 사랑은 일견 계층과 성을 뛰어넘어 모두에게 열린 것으로 보이지만, 타인과 어떻게 인격적 소통을 시작할 수 있을 것인가의 문제는 여전히 난제로 남을 수 밖에 없다. 이런 가운데 팬팔은 이같은 어려움을 우회적으로 돌파할 여지를 부여하는 것으로 여겨진다.

나아가 팬팔이 청소년·청년층에서 대대적으로 유행했다는 점은 오히려 낯선 타인과의 편지 교환이 또래·가족이라는 폐쇄적 관계망 바깥으로 나가는 ‘성숙의 계기’로도 기능했을 수 있음을 보여준다. 극도로 도시화된 사회의 경우 사람들은 익명적 접촉을 피하고 동질집단으로 후퇴하려는 경향이 강하게 나타나는 것이 사실이다.(혹은 자신의 존재를 소거시킬 수 있는 극단의 익명성 추구) 이당시 한국 사회는 도시화의 문턱에 있었던 만큼, 개인은 전통적 차원에서 익명의 타자의 존재가 갖는 위험성에 대해 경계 하면서도 그와 동시에 익명성과 이질적 접촉이 만들어내는 해방적 측면에 강하게 이끌렸던 것으로 생각된다.²⁵⁾ 이는 『새의 선물』 속 영옥에게도 마찬가지로, 관계의 결과는 다소 비극적이었지만, 영옥의 팬팔 행위는 다소 철 없던 영옥의 입사(入社)와 성장을 이끌어낸 주요한 기제가 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24) 니콜라스 루만, 정성훈·권기돈·조형준 역, 『열정으로서의 사랑: 친밀성의 코드화』, 새물결, 2009, 238면.

25) 물론 이 또한 시골 여성·도시 출신 군인이라는 서로 다른 위치와 상황도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한편 최종 관계의 파탄과는 무관하게 『새의 선물』 속 영옥과 이형렬은 몇 번의 대면 만남을 통해 관계를 더욱 발전시킴으로서 비교적 일반적인 연애의 과정을 충실히 밟아나갔다고 할 수 있다.²⁶⁾ 군인과 시골 처녀라는 특수한 상황이기는 했으나 영옥의 형렬 면회, 형렬 휴가 시 영옥 방문 등 몇 차례의 만남은 그들의 관계를 더욱 무르익게 하였던 것이다. 그러나 이는 펜팔 상황이 비교적 무리 없이 진행되었던 상황에 한하며, 실제 많은 경우 펜팔은 이런 일반적인 연애의 수순으로 이어지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다. 이는 결국 앞서 말한 편지라는 매체가 어쩔 수 없이 배태할 수 밖에 없는 정보의 은폐와 한계 때문이었다.

오정희의 「편지 친구」²⁷⁾는 바로 편지를 매개로 한 이같은 수/발신자 사이의 오해의 장면을 통해 서사적 긴장을 만들어내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편지 친구」 속 서술자 ‘나’, ‘윤애’는 여러 명과 펜팔을 하는 취미를 가진 여성으로 주간지 펜팔단을 뒤져 남/녀 여러 명과 편지를 주고 받고 있다.

그는 낭패한 표정으로 카운터로 가서 김준식을 찾는 여자가 오면 알려 달라고 부탁을 하고 입구 가까운 곳에 자리를 잡고 앉아 미리 그러한 용

26) 이들 둘의 관계가 파탄에 이른 것은 이형렬을 영옥에게 소개했던 경자 때문이었다. 경자가 둘 사이에 끼어 만남을 지속하던 중 모종의 이유로 경자가 이형렬과 더 가까워지면서 결국 영옥과 형렬의 관계는 깨어지고 만다.

27) 인용된 「편지 친구」가 실린 책은 오정희의 『가을여자』의 수록작 중 하나이다. 책이 출간된 것은 2009년이나, 작가에 따르면 수록된 작품은 “역시 내 생활과 소설 쓰기에서의 이삭줍기 거나 밀그림이기도 하다. 일상생활에서 일어나는 자잘한 사건들이나 획 스쳐간 단상, 이미지, 때로는 한 편의 긴 소설을 위한 스케치가 짧은 소설들로 형상화되기도 하였다. 여러 해에 걸쳐 틈틈이 쓰고 발표했던 글들인지라 젊음에서부터 늙어가는 지금까지 내가 겪고 살아온 시간, 삶, 도리 없이 민낯으로 담겨 있어 약간의 민망함과 부끄러움을 느끼지만(후략)”과 같이 짧은 콩트에 가까운 단편들로 각각의 작품이 원래 창작된 시기를 특정하기 어렵지만 작품 활동을 해오던 시기에 걸쳐 창작된 것으로 짐작된다. 다만 주간지, 해외펜팔 등의 단어를 통해 해당 작품의 배경이 1960년대-1970년대임을 짐작할 수 있다. 오정희, 「작가의 말」, 『가을여자』, 랜덤하우스, 2009, 4면.

도로 들고 온 듯한 신문을 펴들었다. 그러나 고개는 연방 출입문계로 돌아가고 있었다. 내가 앉은 자리에서 그의 뒤통수만 보였다. 나는 손거울을 꺼내 얼굴을 매만지고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 사이 시간은 이미 삼십 분이 지나 있었다. 문을 나설 때까지 나는 그의 미심쩍고 긴장된 눈길에 따갑게 뒤따르는 것을 의식할 수 있었다. 전혀 그럴 리 없는데도 나는 누구에게나 살살이 엿보이고 있는 듯한 부끄러움에 얼굴이 확확 달아올랐다. 번번이 이 모양이었다. 그와는 삼 개월 남짓 펜팔을 해왔다. 편지 친구는 그뿐이 아니었다. 언젠가 나는 주간지 펜팔 란에 진실한 남녀 벗과의 서신교환을 원한다는 내용과 함께 주소를 낸 일이 있었다. 나는 그때 일하고 있던 병원 보조간호사의 자리에서 떨려나 밤낮없이 방구석에 틀어박혀 라디오를 끼고 살다시피 하며 모호한 권태감과 절망감에 빠져 있었다. 그러자 대한민국 방방곡곡의 외롭고 쓸쓸한 남자들로부터 편지가 날아오기 시작했다. 어머니는 ‘편지는 그냥 간다냐 다 큰 계집애가 코빼기도 모르는 사내들과 노상 편지질을 하다니’ 하며 나 몰래 개봉을 하고 시답잖은 내용이 적힌 편지들로 불쏘시개까나 좋아하신 모양이었으나, 이제는 허구한 날 엿드려 주간지 펜팔 란을 뒤지며 편지를 써대는 내게 이왕이면 해외펜팔을 하는 게 어떠냐고 넌지시 권하실 정도가 되었다. 혹 교포 재벌 사위를 얻을지도 모른다는 계산속이 있으신지도 모를 일이었다.(밀줄 강조 인용자)²⁸⁾

인용에서 보이듯 나와 어머니와의 대화에서 해외펜팔이 당대 핑장히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었음을 재차 확인할 수 있다. 나와 편지를 주고받으며 쓸쓸하고 고독함을 강조하던²⁹⁾ 편지 상대방(남성) “그들은 한결같

28) 위의 책, 194-195면.

29) 이같은 ‘고독’이 당당시 자신의 내적 깊이와 성격적 특성을 드러내는 것으로 포장되었음을 선행연구는 다음과 같이 지적한다. “일종의 유행풍조와도 같은 ‘고독’의 클리셰가 개인 독자의 선택이자, 잡지 『명랑』의 기획 전략이라는 특성을 모두 보여준다는 사실이다. 감정과 내면고백은 원래 자율적 개인주의의 표징이며, 자기이미지를 형성하려는 주체적 욕망의 발현이다. 실존주의적 맥락에서 고독(Einsamkeit)은 단순한 물리적 고립(Alleinsein)을 넘어, 자

이 세 번째썸에는 사진 교환을 원하고 다섯 번째 썸에는 상면(相面)을 청”(196면)하는 비슷한 패턴을 보인다. 나는 이런 까닭에 찻집에 앉아서 또 한 번의 상면을 기다리다 펜팔의 상대자였던 ‘김준식’이 찻집에 들어와 자신을 찾고 있음을 보게 된다. 그러나 ‘나’는 김준식이 ‘윤애’임을 물어왔음에도 아니라고 잘라 말한 뒤 그 자리를 잠시 지키다가 결국 찻집을 나오고 만다.

소설가 신경숙 또한 자신의 펜팔 경험에 대해 털어놓은 바 있는데, 오정희 「편지 친구」의 경우와 유사한 장면이 목격된다. 나(신경숙)가 가명을 쓰고 회사주소를 통해 시작한 펜팔은 건잡을 수 없이 폭발적으로 늘어나서 오는 편지들을 다 읽어낼 수 없는 지경에 이른다. 그렇게 펜팔을 지속하던 어느 날, 크리스마스 무렵의 겨울 그 중 한 사람이 주소를 들고 집에 찾아오게 된다. 머리와 턱수염이 길고 마스크에 검은색 긴코트를 입은 남자가 수돗가에 있는 나(신경숙)에게 ‘윤영씨’를 물었을 때 나는 그런 사람은 없다며 고개를 저었다. 그리고 나는 이에 대해 “그 남자도 자신의 본명을 사용했을 리는 만무했겠군”싶다며 “서로 현실의 얼굴과 이름과 나이를 숨기고 오로지 편지를 소통 도구로 삼아 생의 다른 곳을 꿈꾸던 그런 때가 있었다.”로 글을 마무리한다.³⁰⁾ 즉 펜팔은 투명한 관계라기보다 각자가 가진 판타지를 서로에게 투사했던 매우 자기반영적이고 특수한 관계였기에 대면이라는 실체와 마주하는 상황은 기존의 관계를 어떤 식으로든 전면적으로 변화시킬 수 밖에 없었다.

그러나 늘 이 꼴이었다. 상대가 상상했던 모습과 너무 동떨어졌다든가 (대개의 경우 그러했지만) 하는 때문이 아니었다. 만나는 순간 거짓된 말

기 성찰을 위한 내면적 공간이자 주체적 삶을 위한 가치관을 형성하는 필수적인 조건이기도 하다.” 김연숙, 앞의 글, 73면.

30) 신경숙, 「7080 그때 그시절엔 〈17〉소설가 신경숙씨와 펜팔친구」, 2009.10.9.

<https://www.donga.com/news/People/article/all/20041128/8133038/1>, 2026. 8.15 확인, 본 회고에서 신경숙은 정확한 시기를 특정하지는 않으나, 1970년대와 1980년대 정도로 밝히고 있다.

들, 편지지 가득 과장되게 쏟아놓은 감상의 천박함이 선명히 드러나고 그토록 절박하고 절절한 문면에도 불구하고 두 달 혹은 석 달에 걸친 문통이 지푸라기만 한 유대도 이루어놓지 못했다는 허황함 때문이었다. 분명 한 것은 별 희망도, 별 재미도 없는, 요컨대 별볼일없는 청춘 남녀라는 것뿐이었다.(밑줄 강조 인용자)³¹⁾

다시 오정희의 「편지 친구」로 돌아가보면, 나는 ‘김준식’을 외면하고 나왔던 이유에 대해 위와 같이 이야기한다. 외모 뿐만 아니라 그간 주고받은 편지지 가득한 감정과 간절함이 천박함으로 드러나는 것은 오래 걸리지 않았노라고, 펜팔 상으로 그토록 절절했던 관계가 순식간에 허물어지게 된 것은 결국 이 펜팔 관계가 각자의 필요와 판타지에 의존하고 있는 허약한 관계였기 때문이다.³²⁾

특별한 사건이나 변화가 없는 무료한 나날에 똑같은 푸념뿐 늘 쓸거리가 있는 것도 아니어서 나는 칠팔 명의 편지 친구들에게 동시에 같은 문면의 편지를 띄우기도 하고 A에게서 온 그럴 듯한 내용을 베껴 B에게 보내기도 했다. 그러니까 결국 엉뚱하게도 A와 B가 혹은 C와 D가 문통을 하고 있는 셈이었다. 해가 짹짹한 날도 편지 속에서는 ‘비가 와요, 거리에 비 오듯 내 마음에도 비가 와요’로 예사روی 둔감하였다.(밑줄 강조 인용자)³³⁾

그리고 위의 인용에서 보듯, 심지어 그 절절한 편지의 내용마저 온전히

31) 오정희, 앞의 책, 196면.

32) 에바 일루즈는 온라인 데이트사이트를 이용하는 청춘남녀들에 대한 분석을 통해 실제 대면에서 ‘외모’가 갖는 무시할 수 없는 결정적 의미에 대해 논의한 바 있다. 에바 일루즈, 김정아 역, 앞의 책, 183-185면; 또한 에바 일루즈의 다른 저작들(『사랑은 왜 아픈가』, 돌베개, 2013/ 『사랑은 왜 끝나나』, 돌베개, 2020)은 현대 사회 속 사랑이 ‘선택’의 문제와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음이 지적되는데 이는 ‘윤애’의 행동을 설명하는 데 참조점을 제공한다.

33) 오정희, 앞의 책, 195면.

본인의 것들이 아니었다는데에 중요한 문제의 단초가 있다.³⁴⁾ 이렇게 여러 사람에게로부터 온 편지의 내용을 돌려막는 것으로 간신히 유지되는 편팔에서 각 편지는 더 이상 특수성을 지닐 수 없게 된다.³⁵⁾ 이는 유명한 글귀를 기억했다 필사해서 돌려주는 감성과는 물론 그 결과 목적을 달리하는 것이다. 앞서 『새의 선물』의 경우 이형렬은 항상 유명 경구로 편지 서두를 시작했지만, 영옥의 영민한 조카인 진희가 읽기에도 두서 없고 맥락 없이 자신의 교양을 어설피게 뽐내고 낭만적인 사람임을 가장하기 위한 수단에 불과한 것으로 그려진다. 이렇듯 서로가 손쉽게 대체될 수 있다는 점에서 절실함을 가장한 알팍한 그들의 관계는 깨질 수밖에 없은 은당 당연한 것이었다. 이는 작품 말미 다음과 같은 상황으로 희극적으로 마무리되는 지점에서 극대화된다.

말할 수 없이 참담한 심사로 집에 돌아오니 편지가 한 통 와 있었다. 일선지구의 김 병장으로부터였다. 주린 듯 급히 편지를 읽어가던 나는 불현듯 뒤통수를 맞은 듯했다. 필시 민현숙으로부터 내게 온 편지 알맹이를 내가 잘못 김 병장에게 부치고 그것을 다시 김 병장이 되돌려 보낸 것이려니 짐작되었다. 그러나 편지의 끝머리에는 옆으로 비스듬히 갈겨 쓴 김 병장의 이름이 적혀 있었다.

- 비가 오는 소리를 들으며 〈우울한 세레나데〉를 듣고 있습니다. 편

34) 루만의 이론에 따르면 사람들은 인쇄매체 등 여러 매체들을 통해 낭만적 사랑을 학습하게 되는데 상투적인 문구나 경구를 인용하는 것도 이같은 점을 지적한다고 이해할 수 있다. 마르그트 베르크하우스, 이철 역, 『쉽게 읽는 루만』, 한울아카데미, 2012, 240-241면.

35) 에바 일루즈는 앞의 책에서 온라인데이트사이트를 이용하는 사람들이 작성하는 프로파일의 자기소개가 비슷하다는 점에서 은연중에 사람들이 자신을 적당히 포장할 수 있는 무난한 모범답안을 상정하고 있음을 다음과 같이 지적한다. “자기소개가 비슷하다는 것이 그리 이상한 일은 아니다. 곧 자기기술self-description이란 바람직한 인성에 대한 문화적 답안을 차용하는 과정이다. 자기소개가 탈육체적으로 이루어질 경우, 사람들은 바람직한 사람에 대한 기성 관념들을 차용하여 자기의 자아에 적용한다. 바꾸어 말하면 자기소개에서 문자언어를 사용하는 것이 아이러니하게도 획일화, 규격화, 사물화를 초래했다.” 에바 일루즈, 김정아 역, 『감정자본주의』, 160면.

지를 쓸 때마다 나는 미아(迷兒)가 됩니다..... 운명이 우리의 만남을 허락한다면 우리는 한 번의 눈짓으로 서로를 알아볼 것입니다.

토씨 하나 틀리지 않는, 얼마 전 민현숙이 내게 보낸 편지 내용 그대로였다.³⁶⁾

즉 예기치 않는 방식으로 돌려받게 된 지난날 나의 메시지 또한 결국 민현숙이 나에게 보낸 편지의 한 구절이었다는 점에서 서술자는 결국 펜팔을 통해서 내가 원하는 의미 있는 관계를 맺을 수 없으며 펜팔이라는 수단이 한계를 지닐 수 밖에 없음을 제시한다.

한편 ‘나’가 ‘김준식’을 만났다가 실망하고 모른 척 하는 장면과 관련해서는 최근 청년세대의 만남의 통로로서 주요한 기능을 하고 있는 온라인 기반 데이트 사이트 내의 경험들을 떠올리게 된다. 이는 온라인기반 데이트 사이트(앱) 또한 대도시적인 생활방식에 기반한 사람들 사이의 익명성에 기댄 만남인 이유가 크다고 할 수 있겠다. 즉 펜팔 만남의 진화태인 것이다.

에바 일루즈의 분석에 따르면 온라인데이트 사이트를 통해 만남을 가지는 남/녀들 역시 오정희 소설 속 청춘 남녀들과 비슷한 패턴을 보임이 확인된다. 이들 실망과 관련한 전형적인 시나리오를 보면, 우선 잠재적 파트너 리스트를 브라우징하여(아니면 누군가로부터 이메일을 받는다) 포스팅된 사진과 프로필을 토대로 이메일 교신을 결심한다. 그리고는 일이 순조롭게 진행되면 각자 데이트에 대한 판타지를 시작한다. 이 단계에 이들은 통화를 통해 상대방에 대한 아주 강한 감정들을 발전시킬 수 있다고 응답했다. 이는 상상력이 외부의 도움 없이 감정을 생성할 수 있음을 뜻하는 것이다.

그리고 이후 이루어지는 실제 만남에서 대다수의 사람들이 바로 이 지점에서 엄청난 실망을 맛보게 된다. 흔히 사람들은 실망의 원인을 부풀려

36) 위의 책, 196-197면.

진 자기소개 또는 불합리하게 높은 기대와 제한될 수밖에 없는 현실 간의 괴리에서 찾는다. (이상화된 자기 서사가 펜팔을 통해 이루어지는 것) 곧 인터넷 테크놀로지가 현대 특유의 경험으로 여겨지는 경험의 차원(기대와 경험의 괴리)을 심화시킨다는 것이다. 그리고 코젤렉의 견해를 들어 현실-포부 간의 거리가 떨어지는 것이 바로 모더니티의 특징이라고 주장한다.³⁷⁾ 그리고 이는 펜팔을 통해 이루어지는 만남에서도 거의 유사하게 적용됨을 확인할 수 있다.

오정희의 다른 작품인 「비 오는 날의 펜팔」은 서로 펜팔을 통해 인연을 맺었던 청춘남녀의 두 번의 만남을 기록하고 있는 작품이다. 나(허영구)는 어린 시절 그녀(강선희)와 펜팔을 주고받다 한 번의 만남 이후 그녀와 영영 소식을 끊어버린 경험이 있다.

우리는 이른바 펜팔 친구였다. 학원잡지 펜팔 란의 주소를 보고 편지를 쓰기 시작해서 사흘들이로 ‘미지의 벳’에게 밤새워 편지를 쓰고 답장을 애타게 기다리는 게 일이었다.

석 달 만에 사진 교환을 하고 일 년 만에야 만날 용기를 얻어 나는 포항에 사는 그녀에게 내가 사는 작은 항구의, 여수와 권태와 먼 바다로 나가고자 방랑하는 마음을 만나러 오라는 편지를 띄웠다.

여름이 시작되던 어느 일요일, 그녀는 기차와 버스를 갈아타며 나를 만나러 왔다. 그녀에게 들려줄 인생과 사랑과 예술의 이야기, 행여 불량배를 만나거나 풀숲의 뱀을 만났을 경우 내가 취할 태도까지 든 각본을 짜고 나는 그녀를 만났다. 그녀는 사진보다 더 예쁘고, 체격도 태도도 나무랄 데가 없었다. 나는 내 행운을 믿을 수가 없었다. ³⁸⁾

37) 위의 책, 185면.

38) 인용된 「비 오는 날의 펜팔」 또한 작품의 정확한 발표 시기를 알 수 없다. 다만 펜팔이 한참 이루어지던 시기, 과거의 펜팔을 수십 년 후 회고하는 장면을 통해 시기를 짐작할 수 있을 뿐이다.

앞서의 「편지 친구」와는 달리 나와 그녀의 첫 만남 직후는 성공적이었다. 서로에 대한 판타지가 온전히 보전된 채 낭만적 사랑으로의 관계의 진전을 기대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이 과정에서 한껏 고무된 나는 폴숲에 그녀와 나란히 앉아 조금이나마 서먹함과 어색함을 감추고 의젓함과 여유 있는 자세를 보이려고 어깨를 한껏 젖혀 손바닥으로 폴숲을 짚던 나는 “물큰 잡히는 느낌에 진저리를”(46면)치게 된다. 그렇게 예기치 못하게 배설물을 손에 묻히게 된 나는 그 길로 뒤도 안 돌아보고 언덕을 내려가버린다. 나는 그 당시 “나를 엄습한 것은 지독한 수치심과 배반감”이었다라고 회고하면서, 배설물을 만진 순간, 그녀에게 들려주기 위해 준비했던 고독과 절망과 방황, 사랑에 대한 잠언과 경구, 시구, 설익고 거짓말투성인 감상 따위가 다 ‘똥 같은 소리’들이라는 생각에 사로잡혔었다고 고백한다.³⁹⁾ 즉 매력 있는 이성으로서 어필하고자 했던 자기 욕망이 한 순간에 무너져버리자 그 수습마저 포기한 채 관계를 단절시키고 만 것이다. 이는 편지와 첫인상으로 쌓아 온 자기 이미지와 서사를 훼손하기 싫었던 자기방어의 기재와 절망에서 비롯된 행동이었다. 그리고 이는 당대 여성 인물들의 그것과는 또 다른 남성 인물들이 스스로 품고 있던 낭만적 사랑의 한 형태였을 것이다. 물론 대면 만남이 펜팔에서의 환상을 계속 지속시킬지, 아니면 어쩔 수 없는 날 것의 현실을 보여주며 파탄에 이를지는 알 수 없는 일이다. 그러나 그 당시 허영구를 강하게 사로잡았던 지극한 현실감은 수없이 이루어졌을 펜팔 대면 만남들의 사례들과 상기할 때, 그 저 불길한 느낌만은 아니었을 것이다.

한편 수 십 년의 시간이 흐른 뒤 카페에서 허영구는 그 때 그렇게 헤어져버린 강선희와 우연찮게 마주치게 된다. 예전 자신의 서투르고 무례한 행동에 의미를 부여하며, 지금 강선희와의 우연한 만남에 설레는 찰라, 강선희는 보험 이야기를 꺼내며 나를 다시 현실로 되돌려놓는다. 작가는

39) 오정희, 앞의 책, 46면.

두 번째 만남에서 허영구가 간직하고 있던 마지막 낭만적 편린마저 완전히 깨트리면서 펜팔을 둘러싸고 발생할 수 있는 현실과 환상, 기대와 실망의 교차를 여지없이 드러내고 있다.

3. 욕망이 충돌하는 청춘 사업의 장으로서의 펜팔

결말의 회극성을 차치하고, 앞서 오정희의 작품들은 소위 펜팔이 어느 정도는 낭만적으로 기능하는 장면이 그려졌다고 볼 수 있다. 한편 비슷한 시기 한국사회를 배경으로 한 소설을 창작한 박태순의 경우 펜팔을 둘러싸고 보다 날 것의 도시 남/녀의 욕망이 충돌하는 일면을 보여주는 부분이 있어 흥미롭다.

박태순이 1966년 『문학』지에 발표한 「푸른 하늘」은 펜팔이 최근의 온라인데이트 사이트와 거의 유사한 속성을 가진, 자본에 기반한 하나의 유망한 사업으로서의 측면을 보여준다. 지방에서 상경한 ‘지만’은 친구 ‘철규’를 찾아가 몸을 의탁한다. 철규는 지만에게 서울 내 다방들에 잦은 납품하는 일을 마련해준다. 그리고 철규는 ‘희망 펜팔협회’라는 것을 가지고 광화문 우체국 사서함을 하나 빌려 이를 이용하여 펜팔을 소개해 주고 사람들에게서 수수료를 받고 있는데 한 달에 오천 원 가량을 벌고 있다고 이야기된다. 앞서 오정희, 신경숙이 잡지에 실린 펜팔 목록을 통해 펜팔을 시작한 것과 달리 남/녀의 만남을 주선하는 것이 하나의 신사업이 될 수 있음을 보여주는 부분이다.

그리고 지만은 철규를 통해 모 여대 생활미술과 이 학년 재학 중이라고 소개된 ‘은성’이라는 여성을 소개받게 된다. 지만은 일주일에 한번 정도 은성에게 편지를 보내고 답장도 그 정도 간격으로 받게 된다. 서울 토박이인 듯한 은성은 서울 사람이 가지고 있는 “호들갑스런 친절심”을 편지에다가 써 보내곤 한다고 이야기된다. 지만이를 애인이라거나 이성으

로 의식 하고 있지는 않은 듯한 어투로 그녀는 학교 생활에서의 자잘한 웃음거리들과 젊은 여자가 이따금씩 당도하게 되는 외로움과, 각박한 세정에 부딪치게 되는 때의 퇴폐 같은 것을 얘기한다. 그리고 이런 은성에게 지만이는 “어떤 소원감(疏遠感)과 격리감”을 그녀와 서울에서 느끼게 되곤함을 고백한다. 이에 반해 지만은 서울 거리를 싸돌아다니면서 주운 신기한 광경이나 놀라운 일들을 시골 사람의 안목으로 그녀에게 편지를 보낸다. 그리고 철규는 옆에서 이런 지만의 편지를 코치하거나 대필하기도 하면서 관계를 이어가게 조력한다.

은성과의 펜팔이 약 세 달을 넘어가고 있었지만 지만은 차마 은성에게 만나자는 말을 하지 못한다. 바람 맞을까 두려웠고, “그녀만은 그런대로 신비 속에 두”(173)고 싶었던 것이다. 이는 앞선 장에서 살펴봤던 바 수많은 펜팔들이 맞이했던 시시한 결말들을 상기할 때 수긍가능한 행동이라 할 수 있다. 그러던 지만은 다음과 같은 편지를 보내 은성에게 사진을 요구한다.

은성이. 당신의 사진을 한 장 부쳐주었으면 좋겠어, 난 당신의 얼굴을 사진으로나마 보고 싶어. 지금까지 내가 알아 온 당신은 어느 감미로운 봄바람이 부는 아름다운 풍경처럼 아늑한 것이었어. 또는 설비가 잘된 어느 정갈하고 산뜻한 서울의 방에서 느낄 수 있는 것과 같은 것이었어. 이제 나는 당신을 하나의 여자로서 이해해야 할 때가 되지 않았나 생각하는 거야. 아름다운 서울 여자라고 이해할 때가. 그럼 이밤 안녕히 잠들게 되기를.(밑줄 강조 인용자)⁴⁰⁾

다음 번 은성에게서 답장으로 온 편지에는 그녀의 사진이 들어 있다. 사진은 대학교 교문 앞에서 다른 친구들과 찍은 사진이었는데, 은성은 누가 자기인지를 밝혀놓지는 않았다. 그러나 지만이는 그 사진에서 제일 아

40) 박태순, 이수형 편, 「푸른 하늘」, 『서울의 방』, 걷는 사람, 2024, 173면.

름답게 찍혀진 여자가 은성이일 것으로 짐작한다. 사진을 요구하는 지만의 편지와, 그에 대한 답변으로 단체 사진을 보낸 은성의 행동에는 앞선 장에서 살펴보았던 오정희의 소설 속 등장인물들의 모습이 겹쳐보인다. 자신의 욕망을 상대방에 투사하여 덧씌우는 것, 그리고 그 대상과 사랑에 빠지는 것 말이다. 앞서 『새의 선물』 속 영옥이 자신의 사진이기는 하나 상대방 남성의 판타지를 유지시키고 동시에 자신의 자존감을 높일 수 있을 있을 정도로 다듬어진 사진을 동봉했던 것은 차라리 순진한 행동처럼 여겨질 정도이다.

지만과 은성의 태도, 특히 지만의 태도에서 ‘펜팔’이라는 새로운 시스템을 경유했지만 사랑에 빠진 개인의 모습을 발견하게 된다.⁴¹⁾ 이는 현재 온라인기반 데이트앱 상에서 (아직 만나기 전) 사람들이 상대를 생각하는 방식과 유사하다. 지만은 은성을 만나지도 않은 상태에서 은성은 이리러리한 사람이라고 상상한 뒤 그 상상 속 여성인 은성과의 감정을 지속해 나가고 있는 것이다. 지만에게서 보이는 이런 태도는 오히려 철규에게는 지금의 펜팔협회를 다른 식으로 확장해나갈 영감을 주게 된다.

철규는 돈 벌 수 있는 새로운 방도를 발견하였다고 말했다. ‘희망 펜팔협회’를 좀 더 확장시켜야겠다고 그는 말했다. 펜팔을 소개해 주는 것이 아니라 바로 여자를 소개 해주는 그런 체제로 변환시킬 예정이라고 그는 설명했다. 즉 여자 회원들의 숫자를 확보하여 놓은 다음에 그 여자들을 남자들과 접선케 해 주는 것인데, 요컨대 여자들의 성격을 약간 알쏭달쏭

41) 곧 인터넷 상상력을 유도하는 것은 특정 상대에게 내재하는 속성이 아니라 내가 투사하는 상대방의 모습이다. 한 데이트 지침서는 이를 다음과 같이 표현 하고 있다. (중략) 판타지를 만드는 과정, 곧 누군가를 찾는 과정은 실제 만남에 앞서 추상적 속성, 탈육체적 속성의 목록을 작성하는 과정이다. 이와 같은 목록은 내가 희망하는 이상형에 부합하는 것으로 가정되며, 이런 이상형은 내가 나 자신의 욕구와 나 자신의 인성 특질들을 숙지하고 있음을 전제한다. 요컨대 로맨틱한 상상력은 육체에 기반하는 것으로서, 메를로-퐁티가 말하는 이른바 감지sentir의 차원에서 진행되는 반면, 인터넷 상상력은 지각의 실존적 배경을 제거하는 인지connaître의 차원에서 진행된다. 에바 일루즈, 김정아 역, 『감정자본주의』, 196면.

한 족속들로 채워 놓는다는 얘기였다. 알쏭달쏭과는 의외로 서울에 많으니까 이 계획은 무난하게 성공할 수가 있다고도 말했다.

"임마 그건 뚜쟁이 노릇 아니가?" 본의 아니게도 지만이의 음성은 커져 있었다.

"아니지. 우린 메말라버리고 공허해져 버린 사람들에게 감정을 찾아 주고 사랑을 찾아 주고 인생을 찾아 주는 거야, 그리고 그 대가로 돈을 버는 거야."(밑줄 강조 인용자)⁴²⁾

위의 인용문에서 "여자들의 성격을 약간 알쏭달쏭한 족속들로 채워 놓는다" 부분을 주목해볼 수 있다. 철규의 "희망 펜팔협회"의 체제를 확인할 수는 없지만, 아마 지금의 결혼정보회사의 시스템이나, 인터넷데이트 사이트의 체제와 비슷하게 될 것으로 짐작된다.⁴³⁾ 즉 가입자들을 상품처럼 관리하게 된다는 것이다. 가입자들이 펜팔 친구를 구하기 위해 제공했던 자신의 정보는 현재의 만남 시스템들의 '프로필'⁴⁴⁾처럼 작성되게 될 것이다. 그리고 "알쏭달쏭"이라는 개방적이지만 불완전하고 모호한 방어적 표현을 통해 청춘남녀들이 프로필 내에서 자신의 환상을 더욱 극대화할 수 있는 여지를 남겨두어 회원을 끌어들이겠다는 전략적 의지를 드러내고 있다.

그리고 이렇게 남/녀 간의 만남이 계량적 자기표현의 언어를 통해 상업화되는 것은 비단 소설인 「푸른 하늘」에서만 목격되는 것이 아니다. 선행 연구에서 지적한 바 이미 당시 펜팔란을 신던 잡지들이 비슷한 시도를 하고 있었던 것이다.⁴⁵⁾

42) 박태순, 이수형 편, 앞의 책, 175면.

43) 작품 내에서 철규는 전화까지 사서, 전화를 통한 회원 모집을 시도하고 있으며, "희망 펜팔 협회"는 순조롭게 자라고 있는 중"으로 이야기된다. 위의 책, 183면,

44) 에바 일루즈는 프로필이 온라인 관계 형성에서 갖는 지대한 의미를 지적하면서 업체들이 프로필을 자신이 원하는 짝을 찾는 가장 효율적인 도구로서 사용하고 있음을 강조한다. 에바 일루즈, 김정아 역, 『감정자본주의』, 151면,

45) 1964년 1월호에 신설된 「연애센타」는 '고독-연애-결혼'으로 이어지는 매체의 기획의도를

남/녀 간의 만남을 가능하게 하는 결정적인 열쇠인 프로필은 나 자신을 객관적으로 기술하는 것과 판타지로 존재하는 나의 이상들(사랑의 이상, 이상형, 라이프스타일의 이상)을 불러내 세련되게 다듬는 것이다. 에바 일루즈는 온라인데이트 사이트의 자기소개 과정 및 파트너 찾기 과정은 적어도 세 가지 면에서 심리학이라는 설득 담론에 전적으로 의존하고 있음을 연구를 통해 밝힌 바 있다. 첫째, 자아는 취향, 견해, 인성, 기질 등의 개별 범주들로 분할됨으로써 구축하며, 둘째, 프로필의 작성을 통해 사적 자아는 추상적·익명적 관중 앞에 전시되는 가시적 존재로 바뀌며, 마지막으로 시각적 표상 및 언어를 통해 자아를 외화, 객관화하는 형태의 자기인식에 기여한다는 것이다. 즉 누군가를 만나는 데는 고도의 자기성찰 및 자기와 상대의 심리 프로필을 절합하는 능력이 요구된다.⁴⁶⁾ 그리고 이런 논의는 「푸른 하늘」에서 보이는 펜팔 협회의 분석에도 유효하다.

물론 위와 같은 분석은 프로필의 탐색을 통해 펜팔 상대를 선정하고, 실제 만남 전까지 남/녀 사이의 관계가 펜팔로만 유지되는 경우까지를 잘 보여주는 장면에 해당하며, 실제 대면 이후 상황은 또 달라진다. 앞서 「편지 친구」와 신경숙의 수필의 경우에서처럼 형식적인 편지 작성으로 인해 진실되지 않는 프로필을 바탕으로 대면해서 만났을 때 자신의 기대와 다른 경우(외모 포함) 관계가 단박에 깨어지는 경우는 차라리 예상할 수 있는 가장 단순한 형태의 파국이다.

「푸른 하늘」의 경우 지만은 은성과의 만남을 추진하고 실제 만남을 가지게 된다. 그러나 은성이라고 알고 나온 그녀는 사실 은성이 아니라 은

노골적으로 드러낸다. 특히 신청 항목에 새롭게 등장한 ‘생활정도(월수입), 본적지/관향, 신장/체중’은 주목할 지점이다. 월수입은 결혼 생활의 경제적 토대를, 본관과 관향은 가문 간 결혼이라는 전통적 혼인 관습을 반영한다. 이는 「연애센타」가 지향하는 사교가 단순한 유희를 넘어, 결혼을 전제로 한 실무적 탐색임을 입증한다. 김연숙, 앞의 글, 79면. 에바 일루즈는 사랑이 자본과 결탁하는 양상에 대해 그의 또 다른 저서 『사랑은 왜 끝나나』에서 보다 섬세히 살핀다. 에바 일루즈, 김희상 역, 『사랑은 왜 끝나나』, 돌베개, 2020.

46) 에바 일루즈, 김정아 역, 『감정자본주의』, 153-155면.

성의 지인 ‘선희’였다. 그러나 첫 대면에서 ‘선희’는 자신이 은성이 아니라는 사실을 밝히지 않으며, 지만 또한 일전에 보내준 사진을 근거로 ‘선희’를 은성으로 확신하며, 자신의 기대와 맞아떨어졌다는 점에서 의심의 여지 없이 만족해 한다. 그러나 ‘선희’는 이윽고 자신이 은성이 아님을 밝히면서 자신에 대한 지만의 확신을 조롱하고 비난한다.

“난 당신이 좋아졌어”라는 지만의 말에도 ‘선희’는 “그런다구 누가 까딱이나 할 줄 아세요? 순진한 척하는 그런 수법에 걸려들 여자가 있을 줄”이라며, 자신은 “은성이에게 보낸 편지를 보구서 거기가 어떤 인간인지를 단박에” 알아냈다고 비난의 수위를 높인다. 자신의 기대와 판타지에 기대 멋대로 상대를 상상하고 만족해하다가 상대가 내가 알던 사람이 아님이 밝혀졌음에도 충격이나 동요 없이 바로 관심의 대상이 이동하고 있는 지만의 행동은 우리가 알던 기존의 로맨틱한 감수성이나 전통적인 연애의 장면과는 사뭇 다르다. 사랑, 전통적인 연애가 서로의 대체 불가능성, 배타성을 전제로 이루어지는 관계였다는 점을 상기한다면 「푸른 하늘」 속 남/녀의 관계는 바야흐로 한국 사회의 연애의 장면, 관계의 형성이 대도시적 특성을 반영한 채 변화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하겠다.⁴⁷⁾ 더불어 여성인 ‘선희’의 경우 상대에 대한 비난과 분노를 표출하고 있는데 비해, 지만의 경우 의아할 정도로 빠른 태세 변환에 현실적인 면모를 보인다는 점에서 당대 펜팔이라는 매체를 둘러싼 남/녀의 태도의 극명한 차이를 보여준다. 즉 남성과 여성이 펜팔을 통해 얻고자 하는 바는 지극히 차이가 있던 것이었다.⁴⁸⁾

47) 에바 일루즈가 인터넷, 앱을 통해 포착한 사랑의 모습 또한 이같은 부분을 설명할 여지가 있다. 로맨틱한 사랑에서는 사랑의 대상이 하나밖에 없는 존재라고 가정되는 때가 많다. 곧 배타성은 로맨틱한 열정을 지배 해온 희소경제에서 필수불가결한 요소이다. 반면에 인터넷의 취지라고 하면, 풍요경제 교환성의 경제라고 할 수 있다. 곧 인터넷메이트는 풍요경제 위에 기초하는 대량소비의 원칙들- 끝없는 선택, 효율성, 합리화, 목표설정, 규격화-을 로맨틱한 만남의 영역에 도입했다. 요컨대 우리는 로맨틱한 감수성의 주요한 변화를 목격하고 있다. 에바 일루즈, 김정아 역, 『감정자본주의』, 173면.

그리고 이같이 상대가 대체불가능성을 잃고 내 편이에 의해 얼마든지 교체될 수 있다는 현대 도시인의 감수성은 「푸른 하늘」과 같은 시기 창작된 박태순의 초기 대표작인 「연애」(『창작과비평』, 1966)에서도 매우 극명하게 드러난 바 있어 견주어 볼만 하다.

그녀가 나타났다. 나는 그녀에게로 다가갔다. 어제의 그녀와 오늘
의 그녀는 약간 달라 보였다. 그녀는 약간 웃어줄 듯한 표정을 하고
있었는데 나는 부지런히 십여 미터 이상이나 쫓아 갔다.

“이름을 가르쳐주세요.”

“가르쳐드릴 수 없어요.”

“왜 없어요.”

“없으니까 없어요.”

“그럼 슬퍼져요.”

“슬퍼져두 할 수 없어요.”

하긴 슬퍼져도 할 수 없다는 말에는 나도 동감이었지만 그러나 그것에
동감을 표시할 수는 없었다.

“그럼 안녕히 가세요.” 나는 말했다.

“예, 안녕히 가세요.” 이름을 가르쳐주지 않은 그녀는 말했다. 아마 그
때 내가 밤 비행기 소리를 듣지 않았더라면 나는 진짜로 슬퍼져 있었을
지도 몰랐다. 그런데 밤 비행기 소리를 들었기에 그만큼 안 슬퍼져 있었
다. 그리고 나는 도시의 더러운 공기 속에도 씩씩하게 자라고 있는 가로
수의 잎사귀들을 보았다. 그 잎사귀들은 밤의 정령을 만고라도 있는 것
처럼 어두움 속에도 싱싱했다. 그리고 그 부분만큼 나의 슬픔은 탈해져
있었다. 아니 나는 전혀 슬프지 않았다. (중략) 그리고 하루 낮이 또 지나

48) 이는 당대 펜팔 경험을 회고하는 남성 인물들에게 대부분 비슷하게 포착되는 감정이다. 여성으로서 펜팔을 원하는 인원이 수적으로 현저히 적었음에도 불구하고 남성들은 관계의 부담감에서 비교적 자유로운 모습이 포착된다. 이상락, 「그 시절 우리는 펜팔② 편지 쓰는 밤 - 미지의 그대에게」, 『한국농정신문』, 2021.4.4.,

<http://www.ikpnews.net/news/articleView.html?idxno=43805>, 2026.8.15. 확인.

가고 있을 때 나는 폴 앵카 뮤직홀로 갔다. 뮤직홀에는 일당들이 다 모여 있었다.

나는 내가 연애에 소질이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밑줄 강조 인용자)⁴⁹⁾

다소 길게 인용한 「연애」의 마지막 부분은 대도시의 인간 관계, 그리고 남/녀 관계가 익명성, 대체가능성 등의 특징을 띄게 되었음을 명확히 보여준다.⁵⁰⁾ 작품 속 ‘나’는 길거리에서 우연히 만난 ‘그녀’와 특별한 관계를 맺기 위해 노력하지만 그 과정에서 다른 이성을 그녀로 오인하는 등 과정을 겪다가, 작품 말미에는 결국 그녀가 아니어도 상관없다는 결론에 이르게 된다. 특히 이런 변화한 인간 관계에 대해 화자가 스스로 문제로 인식하지 않고 이를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고, 도리어 자신이 이런 피상적이고 새로운 관계, 즉 연애(전통적 의미의 연애와 매우 다른)에 소질이 있다고 생각하는 지점은 이후 한국 사회 내 사고, 친밀성을 형성하는 관계의 양상과 관련해 중요한 통찰을 시사한다 하겠다.

한편 「푸른 하늘」 속 지만은 은성이 아닌 것으로 밝혀진 ‘선희’와 철규의 만남을 주선한다. 그리고 앞서 그랬던 것처럼 ‘선희’는 철규를 거쳐간 여러 여자 중 한 명이 된다.⁵¹⁾ 그리고 지만은 은성에게 보내는 편지의 형식을 빌린 일기를 통해 21세의 첫 하루 성년(成年)이 된 7월 15일, 자신은 구청에 가서 서울 시민증을 발급받을 걱정임을 이야기하면서 “이제 나는 당신을 안 만나도 그만 만나도 그만인 그런 평활한 감정으로서 당신을 만나 보고자 한다. 모든 것이 활짝 개방되어 있는 이 날카로운 도시에

49) 박태순, 이수형 엮음, 「연애」, 앞의 책, 98-99면.

50) 필자는 앞서 발표한 박태순에 관련한 줄고에서 이와 관련한 지점을 상세하게 논의한 바 있다. 김우영, 앞의 글 참조.

51) 철규는 여러 여성을 만났다 헤어지고, 그 헤어진 여성들은 지만과 관계를 맺는데 여기서 여성들은 물건과도 같이 철규-지만에게 건네지거나 교환되는 것처럼 그려지고 있다는 점에서 문제적이다.

서 당신은 폐쇄가 아닌 능동적인 자세로서 거리를 걷고 있는 행인이 될 수 없을지.”⁵²⁾와 같이 이야기 한 이후 진짜 은성과의 만남을 시도한다. 은성에게 행인이 되기를 종용하는 지만의 일기에서 읽어낼 수 있는 것은 관계에 대한 기대와 부담감을 덜어낸 새로운 관계 맺기의 양상이다. 그리고 이후 여름의 어느 날 실제로 만난 은성은 그간 지만이 알던대로 여대생이 아니라 명동 ‘선인장 바의 바깥’이었다. 그러나 예상할 수 있듯 지만은 이 사실에 대해 당연히 실망하지 않는다. 그리고 은성과 하룻밤을 보낸 뒤 함께 떠나려 했던 동해로의 여행을 목전에서 취소하고 은성과도 헤어진다.

지만은 헤어지던 시점 은성에게 서울을 벗어나서 다른 곳으로 간다는 것이 두렵다고 말하는데 이는 지만이 펜팔이라는 새로운 사교 방법을 경유하여 (가짜, 진짜)은성과의 만남, 헤어짐을 통해 청춘 도시남녀들의 관계의 본질을 알게되면서 서울 살이에 완전히 적응했고, 입사(入社)를 완료했음을 보여준다. 그리고 상대인 은성 또한 오히려 지만보다도 더 이별 통보를 손쉽게 받아들이고 있어 이 지점에서는 특별히 젠더 간 차이가 드러나지 않는다는 점이 매우 흥미롭다. 그리고 같은 맥락에서 지만은 철규에서 의탁하던 처지에서 벗어나 독립하기로 결심하기에 이른다. 이렇듯 작가는 다소 간의 낭만적 지점마저 점차 소거되어버리는 지만-은성 간의 펜팔과 만남 장면을 보여주면서 ‘펜팔’로 대표되는 특정 사교 행위를 통해 한국사회의 개개인(특히 이성 간)들 간의 관계 양상의 구조적 변화를 가감 없이 보여주고 있다. 물론 이같은 깨달음은 지만 자신에게도 그리 썩 유쾌한 것은 아니라 “그때 참으로 이유가 분명치 않은 슬픔”을 느끼는 것으로 이야기되고 있다는 점에서 해당 시기가 한국사회가 새로운 관계 맺기를 시도하던 과도기임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된다.

52) 박태순, 이수형 엮음, 「연애」, 앞의 책, 185면.

4. 나오며

본고는 1960~90년대 이루어진 한국 현대소설에 나타난 팬팔 장면을 통해, 급속한 산업화·도시화를 겪던 한국사회에서 낯선 개인과 개인이 만나는 새로운 관계 맺기의 방식이 어떻게 형성되고 굴절되었는가를 살펴 보았다. 이를 위해 짐멜의 이방인론과 이자관계론, 기든스의 순수한 관계 및 사랑 유형론, 루만의 논의, 에바 일루즈의 감정자본주의론을 이론적 준거로 삼아 은희경의 『새의 선물』, 오정희의 「편지 친구」, 「비 오는 날의 팬팔」, 박태순의 「푸른 하늘」을 분석하였다.

먼저 짐멜의 이방인론은 팬팔의 당사자들이 각자 지니게 되는 이방인적 속성과 이로 인한 새로운 관계 형성 지점을 어느 정도 설명하고 있어 유의미한 지점이 있었으나, 한국의 상황에 완벽히 들어맞지는 않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짐멜의 이방인론은 근접과 거리의 역설, 그리고 그로부터 발생하는 객관성과 신뢰라는 팬팔의 심리적 메커니즘을 설명하는 데는 유효하지만, 팬팔 관계를 구성하는 두 당사자 모두가 소속된 위치가 없는 곳, 즉 무소속의 위치에서 만난다는 대칭적 조건까지는 포착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에서 한계를 지닌다. 짐멜의 이방인은 언제나 이미 존재하는 공동체를 전제하는 반면, 팬팔에 참여하는 두 개인은 어느 쪽도 상대에게 ‘정착한 세계’로서 존재하지 않으며 각자의 연고 집단으로부터 일시적으로 이탈한 채 서로를 마주한다. 이에 본고는 짐멜의 이자관계(dyad)론과 기든스의 순수한 관계 개념을 함께 독해함으로써, 팬팔을 연고주의라는 외부 정박점을 배제한 채 오직 서신 교환의 지속 여부로만 존립하는 자기완결적 관계 형식으로 재정의하고자 했다. 이는 가족과 국가 사이에 ‘사회’라는 층위가 구조적으로 결핍되어 있던 한국사회에서, 그 결핍된 자리를 대체하거나 선취하는 독자적인 실천으로서 팬팔이 지녔던 문화사적 의의를 보여준다.

실제 작품 분석을 통해서는 이러한 이론적 상황이 실제 텍스트에서는

크게 다음과 같은 양상으로 드러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먼저, 편지라는 매체는 신체의 부재로 인해 열정적 사랑에는 구조적으로 미달하지만 낭만적 사랑의 문법은 자동으로 획득하는 관계였다. 『새의 선물』 속 영옥과 이형렬의 펜팔이 시골 여성이 시도할 수 있었던 “가장 안전한 형태의 모험”으로서 성장과 입사(入社)의 계기가 되었던 것도, 오정희의 「편지 친구」, 「비 오는 날의 펜팔」에서 각 인물이 편지 속에서 서로에게 판타지를 투사하며 관계를 서사화했던 것도 이 지점에서 비롯한다. 그러나 편지가 갖는 비대면성은 짐멜이 지적했듯 ‘이해와 오해의 복잡한 상호작용’을 낳는 근원이기도 했다. 여러 명과 동시에 같은 문면의 편지를 돌려쓰던 「편지 친구」의 ‘나’, 서로 다른 상대에게 온 편지가 뒤바뀌어 되돌아오는 희극적 결말, 그리고 신경숙의 회고에 나타나듯 “서로 현실의 얼굴과 이름과 나이를 숨기고” 이루어졌던 소통은, 펜팔이 애초에 투명한 관계가 아니라 각자의 판타지가 투사된 자기반영적 관계였음을 보여준다. 이 판타지는 실제 대면이라는 현실 앞에서 손쉽게 붕괴하는 양상을 보였으며, 이는 에바 일루즈가 온라인 데이트 경험자들에게서 확인한 기대와 현실 사이의 괴리와 정확히 같은 구조를 반복한다.

다음으로, 이 판타지 투사의 양상은 뚜렷한 젠더 차이와 더불어 새로운 관계 양상을 드러내고 있다. 이는 특히 박태원의 「푸른 하늘」 속 펜팔 장면을 통해 확인된다. 지만은 펜팔을 통해 알게 된 은성이 자신이 알고 있었던 여성과는 전혀 다른 인물이었음이 밝혀졌음에도 별다른 동요를 보이지않고 관심을 바로 이동시키는데, 이 같은 모습은, 오정희와 은희경 소설 속 여성 인물들이 펜팔 친구를 대하는 장면과 사뭇 차이를 보인다.⁵³⁾ 여성 인물들은 결혼을 전제로 관계를 지속시키면서 관계의 파탄에 분노와 상처로 반응하거나(『새의 선물』의 영옥), 스스로 여러 상대를 관리하면서도 그 안에서 유의미한 관계를 찾고자 했음을 기억할 필요가 있

53) 앞서 언급했듯, 이성과 관계 맺기에 보다 자유로운 태도를 보인다.

다. (「편지 친구」의 ‘나’) 그러나 「푸른 하늘」은 남성의 시선을 통해 팬팔이 어떻게 산업화·상업화되는지를 극명하게 보여준다. 칠규의 “희망 펜팔 협회”가 단순한 편지 중개를 넘어 여성 회원들을 “알쏭달쏭한 족속들로 채워” 놓는 방식으로 확장을 꾀하는 대목은, 팬팔이라는 관계 맺기의 형식이 오늘날의 결혼정보회사나 온라인 데이트 앱과 원리적으로 다르지 않은, 자본에 기반한 하나의 사업 모델로 전환되는 지점을 정확히 보여준다.

요컨대 팬팔은 형식적으로는 짐멜의 이차관계론과 기든스의 순수한 관계·합류적 사랑이 요구하는 조건 — 외부 정박점의 부재, 서로 다른 정체성의 대칭적 인정 — 을 갖춘 관계였다. 그러나 그 형식이 실제로 채워지는 서사와 제도의 층위에서는 낭만적 사랑이라는 기존의 문법, 그리고 결혼시장과 신혼 연애 사업이라는 외부의 목적에 의해 다시 포섭되는 양상을 보인다. 이 잠재성과 실현 사이의 어긋남, 곧 새로운 사교와 친밀성의 가능성이 기존의 젠더 규범과 자본의 논리 속으로 다시 얹혀들어가는 과정이야말로 전후 한국사회에서 팬팔이 지녔던 해방적 가능성과 그 구조적 한계를 동시에 보여주는 문제적 지점이라 하겠다.⁵⁴⁾

54) 익명의 심사자 선생님들께서 지적하신 바, 한국 사회 내에서 팬팔이 지니는 의미를 시기별로 세분화하는 작업이 필요한 것이 사실이다. 보다 확장된 연구 대상을 토대로 한 세밀한 연구는 후속 연구를 통해 보충하고자 한다.

| 참고문헌 |

1. 기본자료

- 박태순, 이수형 편, 『푸른 하늘』, 『서울의 방』, 걷는 사람, 2024.
_____, 『연애』, 『서울의 방』, 걷는 사람, 2024.
오정희, 『가을여자』, 랜덤하우스, 2009.
신경숙, 『17080 그때 그시절엔(17)소설가 신경숙씨와 펜팔친구』, 2009.10.9.
<https://www.donga.com/news/People/article/all/20041128/8133038/1>,
2026.8.15. 확인.
은희경, 『새의 선물』, 문학동네, 2014.
이상락, 「그 시절 우리는 펜팔② 편지 쓰는 밤 - 미지의 그대에게」, 『한국농정신문』, 2021.4.4.,
<https://www.ikpnews.net/news/articleView.html?dxno=43805>, 2026.8.15. 확인.
인.

2. 단행본

- 김태원, 『짐멜의 사회학』, 한국학술정보, 2007.
마르코트 베르크하우스, 이철 역, 『쉽게 읽는 루만』, 한울아카데미, 2012.
앤소니 기든스, 배은경·황정미, 『현대인의 성, 사랑, 에로티시즘』, 새물결, 2003.
에바 일루즈, 김정아 역, 『감정자본주의』, 돌베개, 2010.
_____, 김희상 역, 『사랑은 왜 아픈가』, 돌베개, 2013.
_____, 김희상 역, 『사랑은 왜 끝나나』, 돌베개, 2020.
짐멜, 김덕영·윤미애 역, 『모더니티 읽기』, 새물결, 2005,
니콜라스 루만, 정성훈, 권기돈, 조형준 역, 『열정으로서의 사랑: 친밀성의 코드화』, 새물결, 2009.
Simmel, G. K. H. Wolff, Ed. & Trans, *The sociology of Georg Simmel*, Free Press, 1950,
Peri, Alexis. *Dear Unknown Friend: The Remarkable Correspondence between American and Soviet Women*, Harvard University Press, 2024.

3. 논문

- 김동춘, 「유교(儒敎)와 한국의 가족주의 - 가족주의는 유교적 가치의 산물인가?」, 『경제와 사회』 Vol.- No.55, 비판사회학회 2002, 93-118면.

- 김성수, 「근대적 글쓰기로서의 서간(書簡)양식 연구(2) - 근대 서간텍스트의 역사적 변천과 문학사적 의미」, 『현대소설연구』 no.42, 『한국현대소설학회』, 2009, 137-163면.
- 김소원, 「1970년대 잡지 『여학생』의 소녀 담론과 만화 - 강요된 모범과 만들어진 명랑」, 『대중서사연구』, vol.27, no.3, 통권 59호, 대중서사학회, 2021, 13-51면.
- 김시근, 「펜팔을 통한 외국어 학습흥미 증진과 자주성 형성에 관한 연구」, 『金龜論叢』 1, 東國專門大學, 1993, 1-14면.
- 김연숙, 「1960년대 대중잡지 『명랑』의 펜팔 문화와 친밀성의 재편」, 『인문과학연구』 57권, 대구가톨릭대학교 인문과학연구소, 2026.3, 67-92면.
- 김우영, 「'은유'로서의 여성과 '산책자'로서의 여성: 박태순 문학의 여성 재현 양상을 중심으로」, 『현대문학의 연구』 85, 한국문학연구학회, 2025, 345-381면.
- 박성환, 「근대 사회의 분화와 '사교'의 문화적 의미」, 『문화와사회』 제13권, 한국문화사회학회, 2012, 187~220면.
- 오마리아, 「전자펜팔활동을 통한 초등학생들의 영어학습자자율성신장 연습」, 『외국어 교육』 13-1, 한국외국어교육학회, 2006.3, 331-360면.
- 정승화, 「'우정(友情)'이라는 심리전: 1960년대 한국에서의 펜팔 운동에 관한 연구」, 『동방학지』 181, 2017, 193-222면.

<Abstract>

Contemporary Korean Novels and Pen Pals – Focusing on New Dynamics of Forming Relationships

Kim, Woo Young

This study culturally and historically examines the process of forming new relationships and intimacy as depicted in the "pen pal" narratives of modern Korean novels from the 1960s to the 1990s. Breaking away from the surveillance of traditional familism and regionalism (blood ties, regional ties, and school ties), the pen pal phenomenon functioned as a unique social format for experimenting with symmetrical and anonymous interactions with strangers. Based on Georg Simmel's concepts of the stranger and dyad, as well as Anthony Giddens' notion of pure relationships, an analysis of works by Eun Hee-kyung, Oh Jung-hee, and Park Tae-soon reveals that pen pals automatically acquired the grammar of romantic love due to the absence of the physical body, providing youth with opportunities for growth and liberation.

However, the non-face-to-face nature of letters led to a complex interplay of understanding and misunderstanding, forcing characters to form self-reflective relationships that projected fantasies onto one another. This fantasy easily collapsed in the face of actual encounters, which is problematic as it mirrors the gap between expectation and reality found in modern online dating analyzed by Eva Illouz. Furthermore, as seen in Park Tae-soon's fiction, the pen pal practice gradually fused with the logic of capital, showing a pattern of being subsumed into commercialized dating business models similar to modern online dating

apps or matchmaking agencies. In conclusion, while Korea's pen pal culture possessed the emancipatory potential of pure relationships lacking any external anchoring points, it simultaneously demonstrated structural limitations by being re-absorbed content-wise into existing gender hierarchies and the capitalist marriage market. Thus, it serves as a major cultural apparatus reflecting the distinct characteristics of modern Korean society.

Key words: Intimacy, Pen Pal, Romantic Love, Georg Simmel, Eva Illouz, Anthony Giddens, 'Emotional Capitalism'

투 고 일: 2026년 8월 18일

심 사 일: 2026년 9월 7일

게재확정일: 2026년 9월 10일

수정마감일: 2026년 9월 28일